

노동정책연구
2018. 제18권 제4호 pp.1~29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대졸 청년 노동시장 이행의 코호트 간 비교연구*

강 순 희**

본 연구에서는 청년패널 1차 웨이브(YP2001)와 2차 웨이브(YP2007) 자료를 활용하여 외환위기 직후와 국제금융위기 직전 두 코호트 간 대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정과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행경로 분석결과, 국제금융위기를 거친 2007년 대학생이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 대학생에 비해 취업으로의 이행 비율이 더 높다. 둘째, 재학 중 취업노력으로서 직업적성이나 흥미검사, 면접훈련 등 체계적인 취업준비 프로그램 참여비율은 2차 코호트인 2007년 대학생이 더 높으나, 공공알선기관이나 이력서 제출, 인터넷 활용 등 통상적 방법은 더 낮다. 특히 전통적 구직경로로 나타나는 친인척, 선배, 친구 등에게 취업을 부탁한 경험은 크게 낮다. 셋째, 구직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로 높은 비중을 보여 왔던 PC통신, 인터넷 활용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학교를 통한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넷째, 생존분석 결과, 1차 코호트에 비해 2차 코호트의 취업 소요기간은 단축되고 있으며, 전문대졸자의 취업 소요기간이 4년제 대학교 졸업자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차 코호트에서 전문대졸자와 4년제 졸업자 간의 취업 소요기간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다섯째, 대학생들의 취업준비 경험의 경우 2차 코호트에서 구직기간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었던 반면, 직업훈련과 아르바이트 경험은 1차 코호트에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1차 코호트 대학생

논문접수일: 2018년 8월 29일, 심사의뢰일: 2018년 9월 4일, 심사완료일: 2018년 11월 6일

* 본 논문은 2016학년도 고용패널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던 것을 수정·보완한 것으로서 2016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교수(sooniakang@kgu.ac.kr)

들이 졸업하는 시점인 외환위기 직후의 노동시장 상황이 2차 코호트 대학생들이 처한 국제금융위기 상황보다 더 어려웠으며, 또한 대학이나 고용지원기관의 취업준비 프로그램이 체계화되고 확산되면서 대학생들이 이들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청년의 직업탐색 행태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세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일 경험, 교육훈련 등이 연계되는 패키지 정책이 확충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핵심용어 : 청년패널, 대졸청년 코호트, 노동시장 이행, 카플란-마이어분석, 생존분석

I. 문제 제기

청년층의 고용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그간 수많은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일자리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다. 청년 취업자는 2013년 하반기 이후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실업률은 지속적인 상승추세로서 전체 실업률의 3배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 고용률은 전체 고용률 증가 추세와는 달리 2004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특히 고학력자들의 노동시장 이행 초기단계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청년의 초기단계 노동시장 이행에서는 청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산업수요와의 매칭의 문제 등으로 이행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구직활동 - 취업 - 미취업 - 비경제활동 등 경제활동상태 간에 이동이 잦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 고학력자들의 첫 일자리 진입시점이 장기화되는 등에서의 이행이 지체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학교교육, 진로와 직업지도의 문제, 과잉 고학력화 등 공급 측 원인도 있지만 최근에는 팽창은 일자리의 감소, 대기업 등에서의 대규모 공채 축소, 경력직 선호 등 수요 측 요인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 측면에서의 문제는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나 청년들의 인식 및 대응방식의 변화 등에

따라 시기별, 세대별로 달리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대졸 청년들이 일자리로 이행하는 과정과 성과를 청년패널 1차 웨이브(YP2001)와 2차 웨이브(YP2007) 자료를 활용하여 두 코호트(cohort)의 대졸 청년 간에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행과정에서는 취업준비 활동과 취업경로에 주목하였으며, 이행성과로서는 취업 소요기간과 첫 일자리의 임금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졸자들은 1차 웨이브의 경우 대부분이 대학 재학 시기인 90년대 말에 외환위기를 겪고 2000년대 초반 회복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였으며, 2차 웨이브의 경우에는 졸업 및 노동시장 이행 시점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나 성과에서 다른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제Ⅱ장에서는 먼저 관련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기초통계 및 기술통계분석을 통하여 두 코호트 간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생존분석을 통하여 구직기간, 즉 취업으로의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두 코호트 간 비교·분석하고 주요 변수들의 이행 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두 코호트 사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제Ⅴ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종합하고 함의와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Ⅱ. 이론과 선행연구

1. 인적자본이론, 직업탐색이론, 그리고 노동시장구조론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¹⁾은 통상 인적자본이론 또는 직업탐색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개인들은 기대수익의 현재 가치가 기대비용의 현재가치보다 더 큰 경우 추가적인 교육선택이나 노동이동 등 인적자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때 교육이나 이동으로부터의 기대

1) 여기에서 이행은 학교-노동시장-학교 간, 취업-실업-비경황 간, 취업상태에서 일터 간, 학교 내 상급학교 진학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익과 기대비용에는 심리적 측면 등 비금전적인 내용도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 시 금전적인 보상만으로는 고교 졸업 후 취업 시 기대수익의 현재가치가 크다고 하여도 사회적·심리적 측면까지 포함할 경우 대학 졸업이 주는 기대수익의 현재가치가 크다면 대학 등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하게 되기에 과도한 고학력화가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직장이동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논거가 되기도 한다. 특히 진로와 직업정보 등이 불충분한 경우 경험이 일천한 청년들의 경우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빈번한 노동이동을 선택하는 경향이 클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청년층의 노동이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이 병존한다. 경력이동을 포함한 노동이동은 경력개발의 일환이며, 빈번한 직장이동은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일자리 탐색(job shopping) 과정으로서 생산적인 투자 활동이 될 수 있으며, 직장이동을 통해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증대할 수 있다(Neal, 1999; Topel & Ward, 1992). 반면 노동이동이 소모적이고 오히려 경력개발을 해치는 과정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 즉 빈번한 직장이동과 잦은 노동시장 유출입은 근로생애 초기의 혼란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근로경험을 통한 인적자원 축적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도 부정적인 효과가 지속된다고 보는 관점이다(Light & McGarry, 1998).

직업탐색이론은 구직자의 직업탐색(구직) 활동과 기업의 근로자 탐색(구인) 활동, 그리고 이 둘에 의한 탐색기간(실업기간)의 결정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청년들의 경우 불완전 정보, 직무나 숙련, 그리고 유보임금과 제공되는 일자리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직업탐색 기간이 길어지거나 취업과 실업을 반복할 수 있음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된다. 남재량·이철인(2011)에서는 직업탐색이론을 마찰적 요인(market friction), 임금제안의 질적 요인(wage-offer distribution), 본인의 선택(reservation wage)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간의 연구들에 의하면 미래의 일자리의 기대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소득 증가분이 많을수록 탐색기간이 길어져 실업이 늘어난다. 또한 유보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탐색기간이 길어지는데, 유보임금은 실업급여나 최저임금액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실업급여액이나 최저임금액이 높을수록 유보임금 수준도 높아져 일자리 탐색기간은 길어지게 된다(김유배, 2004: 163~170; 조우현, 2010: 389~395 등).

구직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구직자들의 실직과 재취업 노력을 파악하려는 직업 탐색이론은 기존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만 실업 양상에 접근하였던 방법론에 비하여 실직기간 구직자들의 행태규명과 실직상태의 지속, 재취업 결정의 양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지닌다(이상록, 2000: 301~305).

그러나 이들 이론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강조점이 다를 뿐이며, 현실에서는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이론만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적자본투자의 관점에서 개인은 고등교육이나 노동이동, 시장정보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의 불완전성이나 기대수준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 정착까지 잦은 이동을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구직기간도 길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들 이론을 복합하여 개인들의 노동시장 정착 결정을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 본다. 이는 Ryan(2001)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는 일자리의 기대수익(인적자본이론)과 더불어 정보비대칭성(직업탐색이론)이 청년층의 높은 노동이동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Jovanovic(1979)은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빈번한 일자리 탐색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매칭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동을 통한 인적자본투자수익의 극대화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인적자본투자이론과 직업탐색이론을 혼합한 논리라고 볼 수가 있다.

한편 노동수요 측면에서 기업의 고용전략도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Anderson(1993)은 기업이 채용과 교육훈련, 해고, 실업보험 부담 등의 고용조정 비용이 클수록 고용조정을 덜 하려는 전략을 쓴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인력의 신규채용을 신중히 하게 되어 노동시장 이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는 청년층 노동시장이 하나의 경쟁적이며 연속적인 노동시장임을 전제로 한 이른바 경쟁노동시장가설에 근거한 이론이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은 청년층 내에서도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또는 성별 등에 따라, 제도적 요인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 주목하여 경쟁적 노동시장과 대비되는 노동시장구조론으로 이를 설명하기도 한다. Osterman(1987), Marsden and Germe(1991) 등은 분단된 노동시장(segmented

labor market)에서 청년들은 저임금의 이차적 노동시장에 머물면서 고임금의 일차적 노동시장으로 이동하기를 기다리는데, 그동안 빈번한 노동이동을 경험한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시장의 분단성(segmentation)이 강하고 고학력화가 일반화된 환경에서는 고졸자와 대졸(이상)자 사이의 노동시장구조나 그 이행과정에는 차이가 클 수 있다.

2. 노동시장 이행과정과 성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성과와 관련하여 낙인효과(stigma effect)가 많이 인용된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및 대기 현상은 결과적으로 첫 일자리 질의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는데(문혜진, 2012), 이는 학교 졸업 후 장기간 미취업 상태로 머무를 경우 청년층의 경력에 오점효과(낙인효과, scarring effects)가 발생하는 것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즉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미취업은 잠재적인 노동수요자에게 나쁜 신호(bad signals)를 보내어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며, 미취업이 장기화될 경우 생애 전반에 걸친 근로기회의 손실과 사회로부터 전반적인 소외현상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Corcoran, 1982; Ellwood, 1982). 강순희·안준기(2010)는 대졸자에 있어 실업의 낙인효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도출하고 실업의 예방과 초기의 실업경험을 막기 위하여 단기적 일자리 제공, 교육훈련 투자, 진로·직업지도와 상담의 확대 및 내실화 등이 중요한 정책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행경로와 관련한 논의로는 공식적인 구직경로가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확률을 낮춘다는 반정호·김경희·김경휘(2005), 구직횟수, 구직방법, 구직태도 등을 포괄한 구직활동이 구직자의 재취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상록(2000), 희망임금과 경력이 높을수록 취업 성공률이 낮아진다는 오성욱·윤성준(2005), 취업알선서비스 등 공공구직지원서비스가 재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한 이시균·김두순(2008) 등이 있다. 박진희(2010)는 대졸 구직자들이 일자리 탐색방법으로 공식적 방법을 활용하는 비율은 84.2%에 이를 만큼 높으나 이를 통한 취업성공 비율은 다른 탐색방법에 비하여 낮으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우가 이행기간이 가장 짧다는 것, 그리고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취업한 경우 임금으로 본 일자리 질이 가장 좋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의 일자리 탐색방법의 분류로는 공공서비스나 청년층의 특징이 잘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활용 등을 통한 일자리 탐색방법의 성과는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구직행태의 취업성과와 관련한 국외의 연구로는 재직 중 구직활동(on-the job search)이 실직 중 구직활동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Blau & Robins(1990), 호주 사례를 가지고 공공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구직활동이 다른 구직방법보다 취약계층에게 더 효과적임을 실증하고 있는 Weber & Mahringer(2008), 그리고 고용지원 등 노동시장정책이 실업자의 유보임금을 낮추고 구직노력을 강화시킴을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하고 있는 Van den Berg et al.(2009) 등이 있다. Reid(1972)는 구직탐색 방법을 비공식적(친구·친척, 직접지원 등 포함) 방법과 공식적(고용서비스) 방법으로 구분하여 비공식적 방법이 공식적 방법에 비해 효율적인지를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실업자뿐만 아니라 직장을 옮기는 사람에게도 비공식적 방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 Holzer(1986)는 청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일자리 탐색방법은 친구·친척, 직접지원이며 이 방법이 일자리 제의와 수락에 더 생산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Bagues & Labini(2009)는 이탈리아 구직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구직탐색 방법은 고용서비스와 친구를 통한 일자리정보수집이며, 이 방법이 일자리 취득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Weber & Mahringer(2006)는 오스트리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할 때, 실업자와 비교해서 직장을 옮기는 사람은 직접지원을 통해 구직탐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은 다른 구직탐색 방법을 사용한 것에 비해 10% 정도 높았고, 이직 위험률(hazard rate)도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행을 위한 노력으로서 직업탐색이라는 노동시장 행위가 몰사회적인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들이 위치한 사회적 관계의 연결망에 의해 그 목표설정과 진행방식 및 과정, 그리고 성과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Granovetter, 1974; 이병훈, 2002: 5~6에서 재인용)은 단순히 구직활동 비용, 유보임금 등 경제적 변수가 구직행태를 결정한다는 그간의 경제

학적 접근법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나아가 Granovetter(1974)나 Hanson & Pratt(1991)는 구직방법 중 친구·지인 등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얻게 되는 일자리 정보가 공공 및 민간 취업알선기관, 대중매체 등 공식적 일자리 탐색방법을 통해 얻는 정보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고용주의 특성이나 일의 내용, 회사 분위기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구직자의 입장에서 해당 일자리와 자신과의 적합성을 미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외로 구직활동의 취업성과와 관련하여 사회적 실험방식(social experiments)을 이용하여 Heckman et al.(1999), Bjorklund & Regner(1996), Dolton & O'Neill(1996) 등은 공공구직지원서비스가 구직자의 재고용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침을 밝히고 있다. Fougere et al.(2009)은 프랑스에서 공공구직서비스가 효과적인데 저학력 여성, 저숙련자들에게 더 유효함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구직활동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공공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Fougere et al.(2009)에서는 공공구직지원서비스가 여성과 청년층에만 효과적일 뿐 다른 집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3. 청년 코호트 간 비교

청년층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기 또는 세대 간 비교분석을 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시기 또는 세대 간 비교연구에서는 특정 기간 내에 출생하거나 주제와 관련된 특성을 공유하는 대상집단을 의미하는 코호트(cohort)를 가지고 하는 분석이 많다. 노동시장 연구에서는 코호트 분석과 결합하여 생애과정 관점(life-course perspective)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생애분석, 즉 노동궤적에서 나타나는 경로와 노동성과의 차이,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문혜진(2010)은 생애과정 관점을 적용하여 개인의 생애과정과 역사적, 사회적 변화를 접목시키는 시도로 1930~1979년 사이에 출생한 코호트의 성인으로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를 추적하고 있는데, 교육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후속 이행의 시기와 구조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1960년대 출생 코호트까지 젊

은 코호트로 올수록 교육종료와 노동시장 진입, 결혼과 첫 출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지연됨과 동시에 대부분의 구성원이 압축된 연령구간에서 이행을 완료하는 생애과정의 표준화가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문혜진(2013)은 외환위기 이후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 장기화되고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 면에서 첫 일자리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청년 코호트는 미취업형과 실업형, 비대기업형, 비정규직형 및 이동형 특성을 갖는 경력유형에 속할 상대적 위험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고용불안정성이 더 커졌으며, 내부노동시장형에 비해 외부노동시장형 경력유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영민·임정연(2014)은 X세대, Y세대, 베이비부머 세대 등 세 코호트로 나누어 직업이동 패턴과 유형에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코호트 집단별 주된 직업특성에 차이가 있어 Y세대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로 올라갈수록 직업유형 중 전문가와 사무직, 준전문가의 비율은 줄고, 기능직,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된 코호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X세대의 경우, 직업 간 이동보다는 같은 직업으로의 이동패턴이 두드러지고 사무직과 기술·기능직 직업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으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코호트 집단은 퇴직 후 재취업하거나 퇴직에 근접하여 농어업전문가 직업이 확대되고 귀농자가 많아지는 경향이 나타났고, 단순노무직과 같은 낮은 일자리로의 직업이동 패턴도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최지원(2015)은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 코호트를 비교·분석하고 있는데, 이들 두 코호트의 경력유형은 대체로 유사하나 세부 직업 및 고용상태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청년층은 코호트에 상관없이 빈번한 이직을 경험하고 있어 초기경력자로서 노동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시행착오를 겪게 되며, 이는 경제상황과 무관하게 청년층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는 고유한 경력형성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 조사국 선진경제팀(2015)은 코호트 연구는 아니지만, 금융위기 이후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구인자와 구직자의 격차) 지수가 주요국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률과 일자리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베버

리지 곡선 추정결과도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불균형이 심화됐음을 보이고 있다. 즉 베버리지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빈 일자리가 생겼는데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어 퇴직 등으로 일자리가 생겼지만 신규고용이 그만큼 늘지 않았거나, 고학력 대졸자들이 양질의 일자리에만 몰리는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이론에 근거할 때, 최근 노동시장에서 대표적인 취업애로 집단이 되고 있는 대졸 청년들의 구직행태를 포함한 노동시장 이행과정과 그 성과가 어떠한지, 특히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이후와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행과정이나 성과에서 차이가 있는지, 본고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Ⅲ. 자료와 기초분석

1. 자 료

본 연구는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의 1차 웨이브(YP2001)와 2차 웨이브(YP2007) 자료를 활용한 코호트 연구이다.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층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계배경 등을 반영하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연구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1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1차 프로젝트(YP2001)를 시작하였다. 이 조사는 2006년까지 6차례에 걸쳐 매년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기존 패널의 연령 증가에 따라 저연령대 청년 통계를 보완하고, 현재의 청년 노동시장 및 학교생활의 대표통계를 제공하고자 2007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만 15~29세 청년을 표본으로 구성하여 2차 프로젝트(YP2007)를 구축하였으며 2017년까지 11차 추적 조사가 진행되었다. 만 15~29세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생활, 직장경험, 직업관 및 앞으로의 진로, 직업교육훈련, 구직활동, 가계배경 등을 매년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로서, YP2001의 원표본은 5,956명이며, YP2007은 10,206명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1차 및 2차 웨이브의 1~3차 자료를 각각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청년패널자료에는 중고교 재학, 대학 재학, 기타 비경활, 취업 및 실업 상태 등 다양한 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청년이 혼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청년 고용문제의 주된 대상이 되는 대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중심으로 두 코호트 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1차 조사연도 기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3년을 연결하여 분석하였다.²⁾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졸자들은 1차 웨이브(1차 코호트)의 경우 대부분이 대학 재학 시기인 90년대 말에 외환위기를 겪고 2000년대 초반 회복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였으며, 2차 웨이브(2차 코호트)의 경우에는 졸업 및 노동시장 이행 시점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나 성과에서 두 경제위기 간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고 본다.³⁾

한편 본 연구는 1차, 2차와 3차 조사에서 분석에 필요한 모든 조사항목에서 누락이 없는 표본만을 활용한 균형패널(balanced panel) 분석이다. 이와 같이 자료를 정제한 결과, 1차 웨이브 분석 표본(1차 코호트)은 292명, 2차 웨이브(2차 코호트)는 568명으로 나타났다.⁴⁾

2. 대졸 청년의 이행 경로 비교

1차 조사연도에 대학생이었다가 다음 해에 활동상태가 바뀐 경우를 졸업자로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2차 코호트(YP2001)는 1차(YP2001)에 비하여 취업으로의 이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 졸업 후 다음 해에 대학원 진학, 취업이나 미취업 상태를 거쳐 조사 3년차에 취업상태에 있는 비중을 보면, 1차 코호트의 경우 67.4%(=57.5+9.9)이나 2차 코호트에서는 72.1%로 나타

2) 3년으로 국한한 이유는 본 연구가 대학으로부터 노동시장 이행에 주목하기에 이행의 초기 상태에 집중하고자 한 것이다.

3) 익명의 심사자는 2001년 또는 2007년 당시에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대학생들이 졸업을 유예했다면 이들은 분석 표본에서 빠지기에 졸업당시의 경제상황이 취업기간에 미친 효과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4) 청년일반에서 대졸자만을 추출한 결과 분석표본수가 적어지고 가중치가 변화하여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이다. 익명의 심사자는 이 경우 Lee bounds 추정방법 등을 권고하였으나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는 1차 코호트의 경우 2차 연도에 취업상태나 미취업 상태에 있다가 3차 연도에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비중이 2차 코호트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이는 대졸자들에게 2000년대 초 외환위기 직후의 노동시장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상황보다 더 어려웠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졸업 이후 3개년 동안 계속 미취업상태로 머문 비율이 1차 코호트가 더 높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표 1〉 대졸자의 이행 경로(2001 vs. 2007)

변동 유형			1st wave(2001)		2nd wave(2007)	
t	t+1	t+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학생	대학원	대학원	12	4.1	29	5.1
		취업	0	-	1	0.2
		미취업	2	0.7	1	0.2
	취업	대학원	10	3.4	1	0.2
		취업	168	57.5	327	57.6
		미취업	20	6.9	46	8.1
	미취업	대학원	7	2.4	4	0.7
		취업	29	9.9	81	14.3
		미취업	44	15.1	78	13.7
전 체			292	100.0	568	100.0

자료: 청년패널 1차 웨이브(2001), 청년패널 2차 웨이브(2007) 원자료.

다음으로 재학 중 취업준비 활동을 비교하여 보았다. 여기에서 취업준비 활동이란 이력서 제출, 입사시험 응시, 구직사이트 등록 등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취업 관련 정보공유, 면접준비를 위한 그룹(집단) 스터디, 취업을 위한 공사/공무원 시험 등의 준비, 인턴 경험 등 취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2차 코호트가 1차에 비하여 취업준비 활동을 덜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참여경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자격증을 보유한 비율은 2차 코호트에서 더 높다.

〈표 2〉 재학 중 취업준비 활동(2001 vs. 2007)

재학 중 취업준비 활동		1st wave(2001)		2nd wave(2007)		차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취업준비	하고 있음	161	55.1	269	47.4	-7.7 ^{***}
	하지 않음	131	44.9	299	52.6	(72.8)
훈련경험	있음	28	9.6	23	4.1	-5.4 ^{***}
	없음	264	90.4	545	95.9	(83.2)
자격증 보유	있음	133	45.5	287	50.5	5.0 ^{***}
	없음	159	64.5	281	49.5	(90.1)

주: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 ()은 t값을 의미하며,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임.

자료: 청년패널 1차 웨이브(2001), 청년패널 2차 웨이브(2007) 원자료.

〈표 3〉 대졸자들의 재학 중 취업을 위한 노력

	1st wave (2001)		2nd wave (2007)		차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직업적성·흥미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55	34.6	116	43.1	8.5 ^{***} (51.9)
2. 면접훈련을 받아 본적이 있다	33	20.8	65	24.2	3.4 ^{***} (67.2)
4. 공공알선기관에서 상담해 본 적이 있다	31	19.5	50	18.6	-0.9 ^{***} (76.4)
6. 회사에 이력서를 내본 적이 있다	89	55.3	141	52.4	-2.9 ^{***} (48.3)
7. 구직정보를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다	75	46.9	126	46.8	0.0 ^{***} (50.3)
8. 친인척, 선배, 친구 등에게 취업을 부탁한 적이 있다	77	47.8	70	26.0	-21.8 ^{***} (64.1)

주: 1) 취업을 위한 노력 가운데 '3. 학교에서 상담선생님과 의논해 본 적이 있다'와 '5. 취업박람회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는 2차 웨이브의 조사 항목에서는 누락되어 제시하지 않음.

2) 비율은 각 항목별 결측값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임.

3)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

4)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 ()은 t값을 의미하며,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함.

자료: 청년패널 1차 웨이브(2001), 청년패널 2차 웨이브(2007) 원자료.

하지만 재학 중 취업을 위한 노력에서는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직업적성이나 흥미검사, 면접훈련 등 체계적인 취업준비 프로그램 참여비율은 2차 코호트에서 더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공공알선기관이나 이력서 제출, 인터넷 활용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그간 조사에서 주된 경로로 나타나는 친인척, 선배, 친구 등에게 취업을 부탁한 경험은 21.8%p나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대학이나 취업지원기관에서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체계화되고 보급이 확산되면서 대학생들이 예전보다 이들을 더 많이 활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직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를 1순위 응답만 가지고 보면, 청년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왔던 PC통신, 인터넷 활용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에 선생님, 학교기관 등 학교를 통한 비중이 13.2%p나 증가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공공기관 활용 비중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4〉 구직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1순위)

	1st wave(2001)		2nd wave(2007)		변동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학교(선생님 등)	50	31.1	119	44.2	13.2***
2. 신문, TV 등 언론매체	6	3.7	10	3.7	0.0***
3. 생활정보지	4	2.5	6	2.2	-0.3***
4. 부모 또는 친척	6	3.7	8	3.0	-0.8***
5. 친구 또는 선후배	11	6.8	15	5.6	-1.3***
6. 공공취업알선기관	9	5.6	2	0.7	-4.8
7. 사설취업알선기관	1	0.6	1	0.4	-0.2
8. PC통신, 인터넷	70	43.5	88	32.7	-10.8***
9. 회사에 직접 연락	-	0.0	5	1.9	1.9
10. 직업 및 취업박람회	1	0.6	4	1.5	0.9
11. 학원	2	1.2	4	1.5	0.2
12. 현장실습/인턴쉽	-	0.0	-	0.0	0.0
13. 기타	1	0.6	7	2.6	2.0

주: 1) 2차 웨이브(2007)의 '2. 학교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 경력개발센터 등'은

1. 학교(선생님 등)로, 14. 헤드헌터(서치 컨설턴트)는 13. 기타로 포함함.
- 2)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 조사되고 있음.
- 3) 변동은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함.

자료: 청년패널 1차 웨이브(2001), 청년패널 2차 웨이브(2007) 원자료.

〈표 5〉 구직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1,2,3순위 통합)

	1st wave(2001)		2nd wave(2007)		변동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학교(선생님 등)	101	21.4	239	33.7	12.4***
2. 신문, TV 등 언론매체	52	11.0	51	7.2	-3.8***
3. 생활정보지	28	5.9	18	2.5	-3.4***
4. 부모 또는 친척	23	4.9	23	3.2	-1.6***
5. 친구 또는 선후배	64	13.5	95	13.4	-0.1***
6. 공공취업알선기관	27	5.7	20	2.8	-2.9***
7. 사설취업알선기관	6	1.3	10	1.4	0.1***
8. PC통신, 인터넷	124	26.2	167	23.6	-2.7***
9. 회사에 직접 연락	6	1.3	11	1.6	0.3***
10. 직업 및 취업박람회	19	4.0	29	4.1	0.1***
11. 학원	11	2.3	19	2.7	0.4***
12. 현장실습/인턴쉽	8	1.7	13	1.8	0.1***
13. 기타	4	0.8	14	2.0	1.1***

주: 1) 2차 웨이브(2007)의 '2. 학교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 경력개발센터 등'은 1. 학교(선생님 등)로, 14. 헤드헌터(서치 컨설턴트)는 13. 기타로 포함함.
 2)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함.
 3) 변동은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함.

자료: 청년패널 1차 웨이브(2001), 청년패널 2차 웨이브(2007) 원자료.

하지만 청년들의 경우 대체로 하나보다는 복수의 구직정보 경로를 활용할 것이기에 1순위부터 3순위까지를 통합하여 보았다. 그 결과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1순위만을 본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나 PC통신, 인터넷 활용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학교를 활용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공공기관 활용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다만, 신문, TV 등 언론매체나 생활정보지를 활용하는 비중이 비교적 크게 감소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IV. 이행과정과 노동시장 성과의 코호트 간 비교

이제 본 연구의 주된 주제인 두 대졸 청년 코호트 간 노동시장 이행과정과 성과를 구직기간과 변수별 영향 정도를 가지고 비교·분석하여 보자.

1. 기초통계

본 분석에서 사용한 기초통계는 <표 6>과 같다. 1차 코호트에 비하여 2차 코호트의 평균 연령이 0.44세 많으며 부모의 학력도 약간씩 높아지고 있다. 4년제 대학생이나 서울 소재 대학의 비중 역시 2차 코호트가 높다. 2차 코호트에서 인문, 교육계열은 감소하고 사회, 공학, 자연계열 등 실용분야 전공이 증가하고 있다.⁵⁾

<표 6> 분석 변수들의 기초통계

변수		1st wave(2001)		2nd wave(2007)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sex	성별(남성=1)	0.514	0.501	0.479	0.500
age	연령(만 나이)	22.880	2.307	23.317	2.339
edu_f	아버지 교육연수	10.404	3.733	12.113	3.163
edu_m	어머니 교육연수	9.243	3.290	11.560	2.585
univ	대학 유형(4년제 대학=1)	0.555	0.498	0.620	0.486
region	학교권역(서울=1)	0.144	0.352	0.202	0.402
major1	전공: 인문계열	0.137	0.344	0.092	0.289
major2	전공: 사회계열	0.182	0.386	0.290	0.454
major3	전공: 교육계열	0.490	0.501	0.107	0.310
major4	전공: 공학계열	0.041	0.199	0.264	0.441
major5	전공: 자연계열	0.048	0.214	0.072	0.259
major6	전공: 의약계열	0.055	0.228	0.065	0.247
major7	전공: 예체능계열(기준)	0.045	0.207	0.109	0.312
alba	아르바이트 경험여부	0.634	0.483	0.741	0.438
p_job	취업준비 경험여부	0.551	0.498	0.474	0.500
training	직업훈련 경험여부	0.096	0.295	0.040	0.197
licence	자격증 보유여부	0.455	0.499	0.505	0.500

자료: 청년패널 1차 웨이브(2001), 청년패널 2차 웨이브(2007)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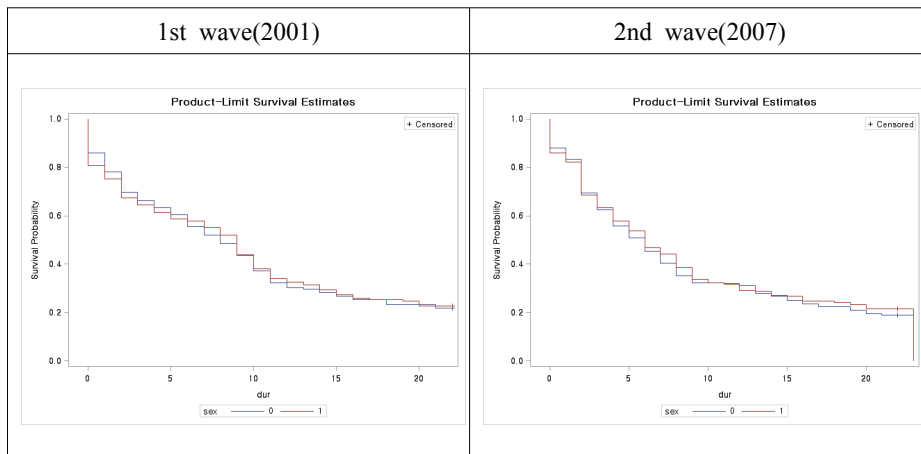
5) 하지만 전공 비중의 변화는 대표성을 갖지 못하기에 각 코호트에서 통제변수로만 사용하였으며 전공 비중의 변화와 관련한 결과는 적극적 해석을 자제하였다.

2. 구직기간(취업 소요기간)

가.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 방식

졸업 후 직장 이행기간 및 첫 직장 근속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래 의학데이터 기간 분석에 사용하는 통계적 기법인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Kaplan-Meier Method를 통해 계층(strata)별로 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기간을 살펴본 후, 비례적 위험(hazard) 모형인 콕스 회귀모형(Cox Regression)을 통해 논의를 확장하였다.

[그림 1] 성별 노동시장 이행기간의 코호트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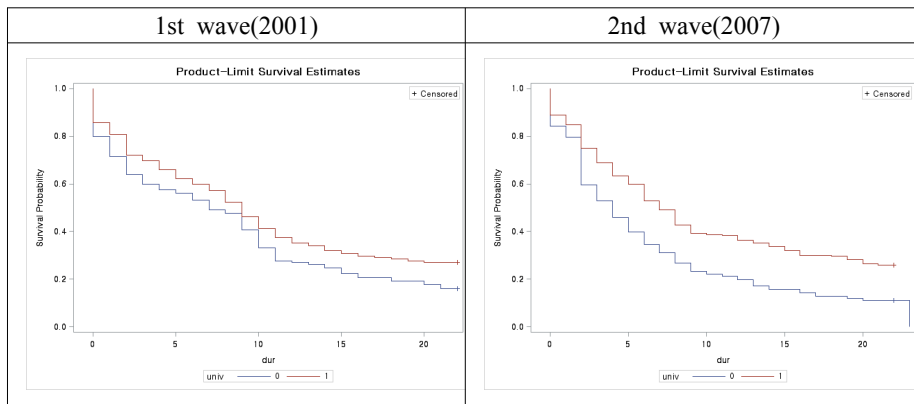
time variable duration			time variable duration		
percent	여성	남성	percent	여성	남성
75%	18.0	19.0	75%	15.5	16.0
50%	8.0	9.0	50%	6.0	6.0
25%	2.0	2.0	25%	2.0	2.0

test of equality		test of equality	
Log-Rank	0.0127	Log-Rank	0.3495
Wilcoxon	0.0186	Wilcoxon	0.0842
-2Log(LR)	0.0164	-2Log(LR)	0.4071

1958년 Kaplan과 Meier에 의하여 고안된 Kaplan-Meier 방법은 관찰된 생존 시간을 크기순으로 나열하여 사건(event)이 관측된 시점마다 생존 확률을 산출한다. 본 모형에서는 졸업 후 첫 직장에 진입하기까지의 기간이 생존시간이 된다. 기간은 월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하였으며 중도 절단된(censored) 유형의 경우(구직자가 취업을 한 경우를 사건(event)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조사 시점까지 구직상태에 있는 경우 중도 절단되었다고 판단) 변수를 0으로 처리하였고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1로 처리하였다.

1차 코호트인 2001년 대학 졸업자의 경우, 여성의 50%가 취업하기까지 소요된 평균기간은 8.0개월이며 남성은 9.0개월로 나타났으며, 75%가 취업하기까지의 기간이 여성은 18개월, 남성은 1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동질성 검정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차 코호트인 2007년 대졸자의 경우 졸업 후 여성의 50%가 취업하기까지의 평균

[그림 2]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별 노동시장 이행기간의 코호트 간 비교



time variable duration			time variable duration		
percent	전문대학 등	4년제 대학	percent	전문대학 등	4년제 대학
75%	14.0	-	75%	9.0	-
50%	7.0	9.0	50%	4.0	7.0
25%	1.0	2.0	25%	2.0	2.5
test of equality			test of equality		
Log-Rank	4.4155**		Log-Rank	26.8388***	
Wilcoxon	3.6556*		Wilcoxon	23.7306***	
-2Log(LR)	6.1389**		-2Log(LR)	39.4802***	

소요기간이 남녀 모두 6.0개월, 75%가 취업하기까지는 여성이 15.5개월, 남성이 16개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질성 검정 결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코호트 간 비교를 해 보면 1차에 비하여 2차 코호트에서 대학 졸업 이후 취업 소요기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외환위기 직후에 비하여 금융위기 시 대졸자들이 처한 노동시장 상황이 덜 나빴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은 전문대학(4년제 이외의 대학)과 4년제 대졸자로 나누어 두 코호트 간 비교를 하여 보았다. 1차 코호트인 2001년에 전문대 등 졸업자의 50%가 취업하기까지는 평균 7.0개월이 소요되었으나,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9.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5%가 취업하기까지는 전문대학의 경우는 14개월이 걸리나 4년제는 자료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차이는 동질성 검정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코호트에서는 전문대 등 졸업자의 50%가 취업하기까지 평균 4.0개월, 4년제 대학은 7.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5%가 취업하기까지는 전문대학의 경우 9.0개월,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미실현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대학 유형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림 2]를 보면, 2007년 웨이브에서 전문대 등과 4년제 대학교 간 구직 기간 차이가 1차 코호트에서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이 주목된다.

대졸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1차 코호트에 비하여 2차 코호트의 경우 취업에 이르는 기간이 단축되고 있으며 전문대졸자 등의 취업 소요기간이 4년제 대졸자에 비하여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차 코호트에서 2년제와 4년제 졸업자 간의 취업 소요기간의 차이가 1차 코호트보다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남녀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나. 콕스 회귀모형(Cox-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model)

졸업 후 취업 또는 실업이라는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시간 간격(time interval)은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Kaplan-Meier 방법의 경우 각각의 카테고리를 나눈 후 첫 직장 이행기간만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어서 각 속성에 대한 시간 간격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지 시간에 따른 효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설명변수의 집합과 종속변수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중회귀분석은 중도 절단된 관측치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에 대한 시간을 분석할 수 없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콕스회귀(Cox regression)모형이다. 콕스모형에서 사용되는 해저드 모형(위험률 모형)은 관측 기간 동안 첫 일자리를 취득한 경험이 없는 우측 절단된 표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치성을 가진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저드 함수 $h(t)$ 는 어떤 사건(T)이 시점 t 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이 이 시점 t 에서 발생할 조건부 순간탈출확률이다. 본 추정에서는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다가 취업으로 순간적인 이행을 하는 경우가 해저드에 해당된다.

$$h(t) =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Pr(t \leq T < t + \Delta t | T > t)}{\Delta t} \quad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콕스회귀모형은 식 (1)을 통하여 구체화할 수 있다. X 라는 설명변수 벡터를 가지는 관측치의 t 기에서의 해저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h(t) = h_0(t) \exp(X'\beta) \quad (2)$$

이때 $h_0(t)$ 는 설명변수와는 독립적인 t 기에서의 기본 해저드(baseline hazard)를 나타낸다. 따라서 콕스모형에서는 매기에서의 해저드 변화가 기본 해저드에 의해 결정되며, 설명변수 x 는 그 크기와 β 의 값에 따라 단순히 기본 해저드를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콕스모형으로는 기본 해저드의 분포에 대한 함수를 가정하지 않고서도, 즉 분포의 정확한 형태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설명변수가 해저드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

다음의 <표 7>은 콕스 회귀 분석의 위험률(탈출률)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위험률 모형은 생존률 모형과 구분이 되는데, 그 차이는 분포를 고려하느냐 유무에 있다. 전자는 분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후자는 와이블(Weibul), 지수(Exponential), 로그정규(Log-Normal) 등의 분포를 고려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분포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위험률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사건(취업)

이 발생할 확률에 대한 모형으로 계수값이 양의 값을 가질수록 그 기간이 짧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코호트 모두에서 4년제 대학 졸업생의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탈출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 경향은 2차 코호트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의 KM곡선에서도 시사되었던 바이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코호트가 덜 젊은 코호트에 비하여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문혜진(2010)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다. 또한 대학생들의 취업준비 경험의 경우 2차 코호트에서 구직기간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었던 반면, 직업훈련과 아르바이트 경험은 1차 코호트에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콕스회귀분석(위험률 모형)

변수	1st wave(2001)			2nd wave(2007)		
	계수	표준 오차	탈출률	계수	표준 오차	탈출률
성별(남성=1)	0.039	0.168	1.040	-0.010	0.126	0.990
연령(만 나이)	-0.918 **	0.473	0.399	0.003	0.402	1.003
연령2	1.989 **	1.021	7.306	-0.003	0.856	0.997
아버지 교육연수	0.007	0.021	1.007	-0.037 **	0.018	0.964
어머니 교육연수	0.027	0.025	1.027	0.007	0.022	1.007
대학 유형(4년제=1)	-0.252 *	0.154	0.777	-0.448 ***	0.119	0.639
학교권역(서울=1)	-0.138	0.212	0.871	-0.013	0.123	0.987
전공: 인문계열	-0.441	0.357	0.643	-0.220	0.231	0.802
전공: 사회계열	-0.246	0.340	0.782	0.304 *	0.173	1.356
전공: 교육계열	-0.210	0.318	0.810	0.119	0.212	1.126
전공: 공학계열	-0.244	0.436	0.783	0.173	0.183	1.188
전공: 자연계열	-0.481	0.437	0.618	0.707 ***	0.223	2.028
전공: 의약계열	-0.439	0.402	0.645	-0.091	0.258	0.913
아르바이트 경험여부	0.236 *	0.149	1.267	0.076	0.114	1.079
취업준비 경험여부	0.257 *	0.146	1.293	0.317 ***	0.100	1.373
직업훈련 경험여부	0.426 *	0.227	1.532	0.037	0.238	1.037
자격증 보유여부	0.045	0.141	1.046	0.053	0.099	1.055
N	292			568		

주: 1) *** p<0.001, ** p<0.05, * p<0.1

2) 전공은 예체능계열 기준임.

자료: 청년패널 1차 웨이브(2001), 청년패널 2차 웨이브(2007) 원자료.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청년패널 1차 웨이브(YP2001)와 2차 웨이브(YP2007) 자료를 활용하여 두 cohorts 대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정과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졸 청년의 이행경로를 비교한 결과, 2차 cohorts는 1차에 비하여 취업으로의 이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는 1차 cohorts의 경우 2차년도에 취업상태나 미취업상태에 있다가 3차년도에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비중이 2차 cohorts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 직전에 외환위기를 경험한 학생들이 비슷한 연령대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학생들에 비해 취업보다는 대학원으로 더 진학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외환위기 직후의 엄정한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본다.⁶⁾

둘째, 재학 중 취업준비 활동을 비교하여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친 2차 cohorts 대졸자가 외환위기를 거친 1차 cohorts 대졸자에 비하여 취업준비 활동을 덜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참여경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자격증을 보유한 비율은 2차 cohorts가 더 높다.

셋째, 재학 중 취업을 위한 노력에서는 직업적성이나 흥미검사, 면접훈련 등 체계적인 취업준비 프로그램 참여비율은 2차 cohorts에서 더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통상적인 프로그램인 공공알선기관이나 이력서 제출, 인터넷 활용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그간 조사에서 주된 경로로 나타나고 있는 친인척, 선배, 친구 등에게 취업을 부탁한 경험은 1차에 비하여 2차 cohorts에서 21.8%나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첫째 사실과 연결시켜 보면, 2차 cohorts의 대졸 청년들이

6) 1차와 2차 cohorts의 졸업 직전인 2001년과 2007년을 비교하여 보면, 전체 실업률은 4.0%와 3.2%, 15~29세 청년 실업률은 7.9%와 7.2%, 대졸 청년이 속하는 20~29세의 실업률은 7.3%와 7.1%로 외환위기 직후가 글로벌 금융위기 시보다 노동시장 상황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취업을 위하여 여러 가지보다는 당장 도움이 되는 준비활동에 집중하는 실용적인 접근이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구직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를 보면, 청년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 왔던 PC통신, 인터넷 활용의 비중이 2차 코호트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에 선생님, 학교기관 등 학교를 통한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공공기관 활용 비중과 신문, TV 등 언론매체나 생활정보지를 활용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점이다.

다섯째, 카플란-마이어 방식과 콕스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취업 소요기간을 분석한 결과, 1차 코호트에 비하여 2차 코호트의 경우 취업에 이르는 기간이 단축되고 있으며 전문대졸자의 취업 소요기간이 4년제 대졸자에 비하여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차 코호트에서 2년제와 4년제 졸업자 간의 취업 소요기간의 차이가 1차 코호트에서보다 더 커지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적어도 대학생들의 경우, 1차 코호트 대학생들이 졸업하는 시점인 외환위기 직후의 노동시장 상황이 2차 코호트 대학생들이 처한 국제금융위기 직전 상황보다 더 어려웠으며, 또한 대학이나 고용지원기관의 취업준비 프로그램들이 체계화되고 확산되면서 대학생들이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실용성이 높고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더욱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4년제 대졸자, 비실용분야 전공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몇 년 전부터 새로이 강조되고 있는 인문분야 대졸자에 대한 취업지원정책은 당초 취지를 살려 내실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대학 재학 중 취업지원정책을 물량보다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으로 내실화하고,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대학생들의 참여유인과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대학생들의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용이 증가하고 효과가 높아지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학력자에 대한 고용 관련 직접서비스는 대학일자리센터 등 대학을 통하도록 하고 인프라 제공 등 이를 지원하거나 학교에서 전달하기 어려운 전문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공공기관이 하도록 하는 것이 한 예가 될 것이다.

셋째, 당초 계획과는 달리 변수의 제약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도하지 못하였

지만 청년의 탐색행태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세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일 경험, 교육훈련 등이 연계되는 패키지 정책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정보 시장에서의 시장실패, 즉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보의 한계비용보다 시장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한계비용이 너무 높아 일자리 매칭이 잘못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손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은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가용한 일자리 정보 획득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정부 역시 공공취업알선기관이나 민간알선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정보 취득비용을 낮추어 탐색과정의 속도를 증가시켜 실업기간을 단축시키고 일자리 매칭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구직자는 이렇게 공식적인 방법을 통하여만 일자리 정보를 구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망을 이용하거나 직접적인 방법 등으로 구직활동에 나선다. 이렇게 개인이 일자리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 즉 일자리 탐색방법은 공식적/비공식적, 직접/간접, 공공/민간, 개인적/사회적 등 여러 측면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시기, 세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청년패널자료는 2001년 기준 청년층(1차 웨이브)과 2007년 기준 청년층(2차 웨이브)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훌륭한 자료이지만, 비교연구를 하는 데 있어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먼저 청년 일반에서 대졸자만을 추출한 결과 분석 표본수가 적어지고 가중치가 변화하여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과도한 일반화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2차 웨이브로 개편 당시 1차 웨이브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큰 폭의 설문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존재하였던 설문문항이 없어지거나(예, 취업자의 정규직인지 여부에 대한 자기 응답), 문항이 신설되면서(예, 어학연수 등) 코호트 간 비교연구에서 해당 변수들은 통제변수나 분석변수로 활용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설문항목 내에서도 보기 문항이 추가되거나 삭제되어 직접적인 비교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변수의 불균형 및 정의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다양한 통제변수 및 분석변수를 이용하여 두 코호트 간 비교를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특히 노동시장 이행의 성과와 관련하여 다양한 성과변수를 중심으로 코호트 간 비교·분석을 하고 그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던 당초의 계획을 실행하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

으로 남는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강순희·안준기(2010). 「대졸자의 실업경험의 낙인효과」. 『한국경제연구』 28 (2): 201~231.
- 김유배(2004). 『노동경제학』. 박영사.
- 남재량·이철인(2011). 『청년층 노동 시장 진입 및 정착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문혜진(2010). 「생애과정 관점에 대한 고찰과 적용」. 『사회복지연구』 41 (3): 349~378.
- _____(2012). 「노동경력의 변화와 노동성과: 노동시장 진입 코호트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2013). 「외환위기 전후 청년 코호트의 노동경력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65 (1): 201~226.
- 박진희(2010). 「대졸자의 구직탐색방법과 취업성과」. 『고용동향조사심포지엄 자료집』. 한국고용정보원.
- 반정호·김경희·김경휘(2005). 「전문계 고교 출신 대학 진학자의 진로현황 및 시사점」. 『한국사회복지학』 57 (3): 73~103.
- 오성욱·윤성준(2005). 「온·오프라인 고용서비스 성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6 (1): 1~26.
- 이병훈(2002). 「구직활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동경제논집』 25 (1): 1~21.
- 이상록(2000). 「실직기간 구직활동이 실직자의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43 (1): 299~327.
- 이시균·김두순(2008). 「공공구직지원서비스가 실직자의 재고용에 미치는 효과분석」. 『고용이슈』 1 (2): 118~138.
- 이영민·임정연(2014). 「순차분석을 활용한 코호트 집단별 직업이동 분석: Y세

대, X세대, 베이비부머세대를 중심으로」.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조우현(2010). 『일의 세계 경제학』. 법문사.

최지원(2015). 「청년층의 경력 유형 연구: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코호트의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국은행 조사국 선진경제팀(2015). 『주요국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Bagues, M. F. and M. S. Labini(2009), “Do Online Labor Market Intermediaries Matter? The Impact of AlmaLaurea on the University-to-Work Transition,” in Autor, D. H.(eds.), *Studies of Labor Market Intermediation* : 127~154.

Bjorklund, A. and H. Regner(1996). “Experimental Evaluation of European Labor Market Policy.” in Schmid, G., O'Reilly, J. & Schomann, K.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Labor Market and Evaluation* : 89~114.

Blau, D. M. and P. K. Robins(1990). “Job Search Outcomes for the Employed and the Unemploy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 (3) : 637~655.

Corcoran, M(1982), “The Employment and Wage Consequencies of Teenage Women's Nonemployment”, in Freeman, R. B. and D. A. Wise(eds.),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391~427.

Dolton, P. and D. O'Neill(1996). “Unemployment Duration and the Restart Effect : Some Experimental Evidence.” *Economic Journal* 106 : 387~400.

Ellwoo, D. T.(1982), “Teenage Unemployment: Permanent Scars or Temporary Blemishes,” in Freeman, R. B. and D. A. Wise(eds.),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349~390.

Fougere, D., J. Pradel and M. Roger(2009). “Does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 Affect Search Effort and Outcomes?.” *European Economic Review* 53 (7) : 846~869.

Granovetter, M. S.(1974). *Getting a Job : A Study of Contacts and Careers*. Harvard University Press.

- Hanson, S. and G. Pratt(1991). "Job Search and the Occupational Segregation of Wome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1 (2) : 229~253.
- Heckman, J., R. Lalonde and J. Smith(1999). "The Economics and Econometrics of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in Ashenfelter, O., and Card, D. (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3a : 1865~2097.
- Holzer, Harry J.(1986), "Search Method use by Unemployed Youth", NBER Working Paper No.1859.
- Jovanovic, R.(1979). "Job matching and the theory of turnover."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 (5) : 972~990.
- Light, A. and K. McGarry(1998). "Job change patterns and the wages of young ma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MIT Press : 276~286.
- Marsden, D. and J. F. Germe(1991). "Young people and entry paths to long-term jobs in France and Great Britain." *Palgrave Macmillan* : 179~199.
- Osterman, P.(1987). "Turnover, employment security, and the performance of the firm." *Human Resources and the Performance of the Firm* : 275~317.
- Reid, G. L.(1972). "Job Search and the Effectiveness of Job-finding Method."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25 (4) : 479~495.
- Topel and Wald(1992). "What have we learned from empirical studies of unemployment and turnover?,"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3(2) : 110~115.
- Van den Berg, Gerald J., Bergemann, H. Annette and Marco Caliendo(2009). "The Effect of Labor Market Programs on Not-Yet Treated Unemployed Individuals." *Journal of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7 (2-3) : 606~616.
- Weber, Andrea, and Helmut Mahringer(2008). "Choice and Success of Job Search Methods." *Empirical Economics* 35 (1) : 153~178.

A Comparative Study on Labor Market Transition between Two Cohorts of Young College Graduates

Kang SoonHie

This paper analyzed the performance and process of labor market transition between two cohorts of young college graduates using YP2001 and YP2007 dat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parison of the transition paths of college graduates showed that the transition to employment was increased in college students in 2007 compared to 2001, and the job preparation activities in 2007 were less than the cohort in 2001. Although 2007 cohort has little experience in job training, they have much more vocational certifications. Second, in the job seeking efforts, the participation in systematic preparation for job preparation programs such as job aptitude, interest test, and interview training is increasing in the 2007 cohort, but the use of public job service agencies, resume submissions and internet use is decreasing. In particular, the asking for a relative, a senior, or a friend, who have appeared as a traditional job search path, is greatly diminishing. Third, while the PC communication and internet use, which have shown the highest proportion of job search information, is decreasing, the proportion of those using the school is increasing. Fourth, the survival analysis shows that the transition period for employment of the 2007 cohort is shorter than that of the 2001 cohort. Particularly, in the 2007 cohort, the difference in the period required for employment between junior college graduates and four-year graduates is larger. Fifth, while college students' experience in preparing for work is more effective in reducing job seeking time in the second cohort, vocational training and part-time work experience are more effective in the first cohor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labor market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when the first cohort students graduat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labor market situation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at the time of graduation of the 2001 cohort college students, was at least more difficult for the college students than fo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ituation of the 2007 cohort students. Also, as the employment preparation programs of universities and employment service organizations are systematized and expanded, it shows that university students are using more structured programs in the process of labor market transition over time.

These finding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ackage policy that is related with generation customized employment service, work experience,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order to improve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young people, considering the change of labor market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change of search behavior of young people.

Keywords : youth panel, young college graduate cohort, labor market transition, kaplan-meier method, survival analysis